

開化期 國語의 敬語法에 대하여

閔 賢 植*

序

國語 敬語法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中世·現代國語 中心으로 많은 論議를 해왔으며, 그 결과 中世·現代國語의 敬語法體系는 대체로 드러났다. 그 동안의 研究史를 먼저 살펴보면¹⁾ 國語 敬語法 研究의 始動을 건 小倉進平(1929)은 ‘이다’를 ‘一種의 敬讓法’, ‘습’을 ‘습’系의 ‘敬讓의 助動詞’로 보았다. 金亨奎(1947)도 결국은 小倉進平과 같은 태도로 ‘-이’나 ‘습’을 謙讓詞, ‘시’를 尊敬詞로 하고 이를 합하여 敬讓詞라 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이’와 ‘습’의 범주가 未分되었던 것이 비로소 구별되게 된 것은 許雄(1954, 1961)에 이르러인데 ‘습’을 客體尊待法의 接尾辭로 규정하여 直接目的語 尊待, 與格語 尊待, 處所格語 尊待라는 細部解釋을 하였다. 또 ‘이다’는 相對尊待, ‘시’는 主體尊待라 했다. 그러나 客體尊待 개념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客體尊待란 개념의 不當性を 지적하여 드러낸 것은 安秉禧(1961), 李崇寧(1962, 1964)에 이르러서이다. 安秉禧 教授의 所論은 客體尊待라는 개념이 ‘습’의 說明에 부적합해서 오히려 尊待보다는 主體謙讓의 뜻을 가진다하여 主體謙讓法이라 하였다.²⁾ 李崇寧(1964)에서는 中世敬語法 體系를 尊敬法 ‘-시’, 謙讓

* 강릉대

- 1) 國語 敬語法 研究史의 概括은 全在寬(1958), 金鍾埴(1984)의 종합을 참조할 것. 특히 後者は 그동안의 주요 연구 업적과 쟁점이 된 論文을 편집한 것이다.
- 2) 客體尊待說의 主張은 統辭구조상에 드러나지도 않은 客體가 생길 경우, 이 客體를 統辭구조 밖에서 意味文脈에 따라 찾아 설정을 해야하므로 너

法 ‘-습-’, 恭遜法 ‘-이-’로 결론지어 中世 敬語法 論議의 매듭을 보여 주었다. 그후 70년대 들어서는 現代國語에서의 ‘높임의 等分’ 문제를 중심으로 敬語法 논의가 활발하여 既存 ‘합쇼, 하오, 하계, 해라體’의 四分體系에 ‘두루높임’, ‘두루낮춤’을 따로 설정한 成著徹(1970), 四分體系에 ‘요’ 統合形과 ‘요’ 統合可能形이란 별도의 二元體系를 설정하고 敬語法을 尊卑法으로 부른 高永根(1974), [±RESPECT]와 [±FORMAL]의 資質을 이용 格式體와 非格式體에 따라 각각 尊待, 非尊待로 설정한 徐正洙(1972, 1984)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中世·現代國語 敬語法의 연구에 비해 近代國語나 過度期 性格을 띤 開化期 國語에서의 敬語法 양상에 대한 논의는 거의 全無했는데 최근 김정수(1980, 1984), 崔起鎬(1979, 1981)의 17C 국어 경어법 연구, 林在洙(1982)의 新小說 敬語法 분석 등이 수확으로 있었다. 林在洙(1982)는 銀世界, 雪中梅 두 작품을 분석하여 敬語法 體系를 세운 것인데 결과는 ‘합쇼, 하오, 해, 하계, 해라’體의 五分體系가 開化期 國語에도 계속됨을 보여주었고 近代國語에서부터의 敬語法 形態素들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제 本稿에서 다루려는 新소설은 <血의 淚>(1906), <鬼의 聲>(상권: 1907, 하권: 1908)로 林在洙(1982)의 자료와 작자가 李人植이란 점에서 같고 단지 작품만 다른데 林在洙의 분석에서 제시된 형태소의 체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林在洙(1982)에서 제시된 形態素들이 <血의 淚>, <鬼의 聲>에서도

무 Mentalism에 빠져 意味論의이란 비판을 받았고(예: 弓劍초습고 <龍 59章>→文章에 없는 客語를 ‘李太祖 곁에서’라고 설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비판, 李崇寧 1964참조), 客體가 안드러나는 自動詞文, 形容詞文, 指定詞文에서도 ‘습’系가 나타나므로 客體설정애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安秉禧 1961). 그런데 최근 現代國語文法論을 기술한 李翊燮·任洪彬(1983)의 현대국어 경어법기술에서 다시 主體敬語法, 客體敬語法, 相對敬語法의 三次元 구조를 설정했는데 ‘습’系가 소멸한 현대국어에 대해서 客體敬語法이란 개념을 설정할 때는 큰 무리가 없겠으나 中世國語에 대해서 客體개념을 주장하면 통사론적관에서의 의미론적인 Mentalism에 빠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主體나 客體나 하는 개념중에서도 특히 客體의 개념은 통사론적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³⁾ 이는 開化期 國語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作者가 같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단지 우리는 林在洙(1682)와 달리 몇가지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한편 경어법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을 口語體의 신소설과 달리 文語體상의 경어법을 담고 있을 開化期 教科書를 통한 敬語法 研究는 康允浩(1975)의 研究가 역시 자료로 분석된 것이 있는데 本稿에서는 <國民小學讀本>, <小學讀本>, <尋常小學>(이상 1895년 발행)을 검토한 결과 康允浩(1975)의 체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문제는 等分體系의 해석에 귀결된다고 하겠다.

이제 이러한 先功들의 체계를 힘입어 近代國語에서 現代國語로 넘어오는 敬語法體系가 開化期國語에서는 어떤 양상인지 살펴본다. 우선 敬語法에 관련된 語辭類(體言, 接辭, 助詞, 感嘆詞)를 살펴보고나서 終結語尾에 나타나는 叙法上的 敬語法을 살펴 보겠다.

I. 敬語法 관련 語辭

(1) 體言類

존대대상에 관련되는 것을 존대하는 이른바 間接尊待의 방법에 따라 오늘날도 ‘말씀, 진지, 병환...’ 등의 단어를 쓰는데 開化期 자료에서도 당연히 찾아 볼 수 있다.

a. 에그 어서 말씀 좀 시연이 하여 주십시오(血 92)

b. 전역진지 치르고 누오리다(鬼上 139)

특히 主從관계의 호칭어들이 쓰인 것과 대명사 ‘즈비’의 사용도 두드러지다.

c. 김승지령감이 놀더러 길순이 다리고(鬼上 7)

3) 林在洙가 분석한 <銀世界> <雪中梅>는 등장인물이 조선 봉건계급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는 上下, 主從 관계 인물들이 풍부하여 경어법 분석에는 유리한 자료이다. 그점에서 우리가 살핀 <血의 淚> <鬼의 聲>은 <鬼의 聲>이 비교적 신분관계의 등장인물이 풍부하나 <血의 淚>는 등장인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신분관계의 인물이 적게 등장하는 약점이 있다.

d. 에구 느리마님이 이란 리중 여귀 오섯네(血 30)

e. 앗세게서 팔자 혼탄호실것이 무엇 이승닛가(血 51)

이상은 尊待對象에게 하는 尊待호칭으로 쓰인 것이다. ‘즈네’는 오늘날도 친밀한 平交間 위주의 호칭과 格式體의 下待時에 쓰이는데 다음 예는 下待時의 정중한 격식체로 쓰인 예이다.

f. 부인이 흘미더러 …호는말이 즈네 말을 드르니(血 54)

g. 녀편네가 남의 집에서…우의올어 즈네적문에 무어시 될것도 아니 되깃네(鬼上 27)

f는 年長者이지만 下女인 노파에게 귀부인이 하는 말이고 g는 양반 부인이 역시 年數가 비슷하나 신분이 낮은 첩모에게 하는 말인데 모두 ‘즈네’를 쓰고 있다. ‘하계’體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해라’體에 해당하는 下待호칭어로는 ‘이리’가 상당히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애!’로 변한 것이다.

h. 이리 김집아 네 집은 외무주장하니(血 31)

i. 이리 길순〇 문여러라(鬼上 2)

林在洙(1982)에서 ‘그티, 소생, 소인, 尊姓, 妾, 閨中 賤品’ 등이 代名詞의 用法으로 尊卑관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용례를 제시한 것도 참조된다. 무엇보다도 開化期 國語 代名詞의 ‘자네, 이에’의 용법이 독특한 것으로 지적되어야겠으니 이는 물론 前代부터의 遺習이 남은 것이다.⁴⁾ 끝으로 謙讓호칭어 한 예를 들고 마친다.

j. 천네 도리에 그러케 돌슴할 수야 잇습니가(鬼上 77)

(2) 助詞 및 接辭

尊稱의 主格과 與格으로 ‘게서’ (‘의셔’), ‘게’가 쓰였다.

a. 아버지게서는 쫄 심궝 마르시고(血 32)

b. 어서가셔 그티로 마남게 엇줍게(鬼上 34)

4) 春香傳, 「열여춘향슈절가」(李家源釋)의 다음 예 참조.

자넛쌀춘향과 빅년언약을 딛고차하니 자넛의 다음이 잇더한가(p.96)

이리야 말마라 이리났다(p.56), 이리 그 편지종 보카구니(p.273)

또 尊卑에 따른 호칭接辭가 사용되었다.

c. 이이 김집아(血 31)

이것은 主事(옥련의 외할아버지)가 시집간 딸(옥련의 生母)을 부르는 호칭인데 사위(옥련의 生父)가 金氏이기에 ‘金집아’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 보기 힘든 표현인데 下待表現이라서 ‘-댁’보다 낮은 호칭이다. 地名다음에 붙는 ‘-집’은 c. ‘김집’의 ‘집’과 같다고 하겠다.

d. 그 춘천집인지 माम님인지(鬼上 25)

그리고 尊待表現에 接辭化된 ‘-마마, -서방(님), -덕, -님(네)’도 쓰였다.

e. 춘천마마를 죽여업시세(鬼上 144)

f. 예그 죽순서방님이 올너오셨네(鬼下 7)

g. 김승지덕 माम이(鬼上 144)

h. 느라는 양반님네가 다망하야노섯시오(血 27)

특히 h의 ‘-님네’에서 ‘-네’는 中世語부터 尊稱의 복수접미사였던 것이다.

i. 아자바님내의 다 安否하습고(釋詳 6 : 2)

그러나 ‘-내(-네)’의 尊稱性은 近代國語 때부터 소실되어 開化期의 이것은 그 부분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李基文 1972 : 206 참조).

(3) 感歎詞

대표적인 것으로 ‘여보, 여보게’를 지적할 수 있다.

a. <귀부인→하녀노파> 여보게 니가 어디로 가던지 자네는 다리고 갈터이니(血 54)

b. <외간남자→옥련모친> 여보 윈 네편네가 이밤중에 여귀와서 잇소(血 6)

‘여보게’는 ‘하계’體, ‘여보’는 ‘하오’體로 구별되는데 이들은 감탄사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2인칭호칭어로서의 용법을 내포하

고 있는 것이다.⁵⁾

林在洙는 ‘을치, 자, 오나’ ‘네, 응, 글세’의 관계도 각각 應待를 표현하는 尊卑관계의 감탄사 용례로 들고 있다.

II. 叙法 終結語尾의 等分

다음은 敬語法의 中心이 되는 叙法終結語尾에 의한 높임의 等分을 살펴 본다. 等分の 體系는 中世國語의 ‘하라體, 하야씨體, 하쇼체體’의 三分體系에서⁶⁾ (이는 각각 ‘해라, 하오, 합쇼’體에 해당하는 것으로 命語法에서나 그러하고 平叙法에서는 하오體는 아직 안보임. 安秉禧 1965 참조) 近代國語의 ‘-옵니, -옵도쇠’ 등이 ‘-네, -테’ 등의 ‘하계’體로 발달하면서(安秉禧 1967 : 209) 오늘날의 ‘합쇼, 하오, 하계, 해라’體의 四分體系로 잡힌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은 두루높임(해요體), 두루낮

- 5) 오늘날 ‘여보, 여보게’는 용법이 축소되어 있다. ‘여보’는 거의 夫婦사이에만 쓰이고 ‘여보게’도 젊은층에서는 거의 안쓴다. 대신 ‘여보세요’가 널리 쓰인다. 春香傳에도 ‘여보’의 용례는 빈번하다. 따라서 開化期까지도 ‘여보’의 기능은 近代國語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여보 도령님’(p.71, 75 등) ‘여보 인정잇난체 하고 나무편지 눈물 무더 찌어지오’(p.275).
- 6) 그러나 中世國語에 三分체외에 이미 ‘하계’體로 볼 수 있는 ‘-니, -리’로 끝나는 例들이 있다. 이들이 ‘-옵니, -옵도쇠’, ‘-네, -테’와 같은 하계體 계열로 볼 수 있다고 安秉禧(1967 : 209)에서 밝히고 있다. 모스게 쓰시리(月釋 一, 10), 모슴호려 하시느니(月釋 一, 10), 특히 여기서 ‘시’가 보이는 것은(즉, 일종의 하계體이면서 ‘시’가 쓰인 것은) 하계體라는 것이 해라體보다는 尊待해준 것이란 점에서 ‘手下尊待’라 할 수 있다는 태도와 통하는 것이다. 金鍾澤(1982)은 하계體를 手下尊待로 보아 국어경어법을 다음과 같이 보기도 했다.

{	존 대	{	手上尊待 { 합쇼體	에 해당
			하오體	
{	평 대	{	手下尊待—하계 體에 해당	
			해라 體에 해당	

그리고 中世國語의 等분이 平叙法(說明法)보다는 疑問法이 더 세분되어 있는 것도 특징인데 이는 疑問法 자체가 聽者(相對)를 직접 對하는 場面이기에 그러하다. 李崇寧(1961)에서도 平叙法은 ① 卑稱(하느니라) ② 上稱(하느니라) ③ 極稱(하느니라)로 나섰으나 疑問法은 ① 卑稱(하느니라) ② 平稱(하느니라) ③ 平稱上(하느니여) ④ 中稱(하느니) ⑤ 中稱上

춤(해體)의 두 체제가 추가된다. 이러한 變遷史에서 아직도 近代 및 開化期 國語의 等分의 移行過程은 不明한 것이 많으나⁷⁾ 우리의 〈血의 淚〉, 〈鬼의 聲〉 및 教科書 分析과 林在洙(1982)의 〈銀世界〉, 〈雪中梅〉 분석, 康允浩(1975)의 教科書分析 등을 종합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開化期 國語가,

① ‘합쇼, 하오, 하계, 해라’體의 틀은 분명히 드러나 이는 中世國語의 三分體系가 近代國語에 와 四分體系로 되어 이 四分體系가 開化期 國語에 계승된 것으로 보이며

② 두루높임(해요體)이 미약하게 보이고, 두루낮춤(해體)도 下待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나타나기에 적어도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두루낮춤이 확립되어 있고 두루높임도 초기의 형성기인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제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感歎法, 請誘法, 應諾法 순으로 살펴본다.

(하느니오) ⑥ 上稱(하느릿가) ⑦ 極稱(하느니릿가) 등 무려 7等分으로 나눈 것이 참조 된다.

- 7) 최근 김정수(1984)는 17세기 국어의 높임법을 ① 아주 높임(-습...응이-) ② 아주높임(-응이-) ③ 예사높임(-습...의-) ④ 예사높임(-의-) ⑤ 안높임(∅)으로 세분하여 변천을 추적했다.

사실 近代國語의 경어법 체계는 口語體 자료의 부족으로 중세국어만큼 확실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김정수(1984)처럼 높임법만 四分한 體系가 있는 이상 中世國語 三分 體系와의 移行過程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 다시 現代國語와의 변천사가 전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近代國語가 여러 특이한 형태소들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으나(-습...응이-, 읊도치 등) 中世國語의 三分體系에 하오體가 平叙法에도 정착되고 ‘하계體’를 추가하여 四分體系를 형성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한편 申昌淳(1963, 1984)은 近代國語의 口語자료인 小說, 歌辭, 판소리 등의 분석결과 ‘恨中錄’(1795~1805年間 지음)에서 하오體가 平叙法의 종결어미로 비로소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18세기末까지는 이미 ‘하오體’는 국어 平叙法에 자리잡힌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세국어 의문법이나 명령형에 보이는 ‘오’나 연결형어미 ‘고’의 7탈락형 ‘-오’를 하오體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참다운 하오體는 平叙法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18세기 近代國語부터라 했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견해라 하겠다. 뒤註 9)참조.

(1) 平叙法

〈합쇼체〉

- a. 학비는 잘되어 주시기를 바람내이다(血 32).
- b. 아기가 터단이 숙성하오이다(血 40).
- c. 란리가 나도 양분의 탓이올시다(血 27).
- d. 잡스럽고 주무시면 좃케습니다(血 26).
- e. 별말씀을 다 하심되다(鬼上 9).

〈하오체〉

- f. 궁금하여 못난 말이오(血 23)
- g. 니가 드러가셔 하님 부르리다(鬼上 19).

〈하계체〉

- h. 어티로 가는지 모르깃네(血 54)
- i. 참가록훈 일일세(血 48)

〈해라체〉

- j. 령감의 정표는 너몸에 가지고 가노라(鬼上 39)
- k. 오날 놀꾼이 로다(血 20).
- l. 사라잇슬수록 고싱이라(鬼上 38)
- m. 논는 살하는 낫다(血 39).

〈해체〉(두루낮춤)

- n. 풍덩 짜져 죽엇슬결(鬼上 36)
- o. 예구 논리마님이 이란리중 여기오섯네(血 30)
- p. 시집도 아니가고 잇다진(血 48)

〈해요체〉(두루높임)

- q. 자목에 아는 사름이 잇느냐. 업서요(血 62)
- r. 논는 말서 다 알아요(鬼上 33)
- s. 그런 말씀은 아니홀터이요(鬼上 33)

이상에서 우선 드러나는 것은 ‘합쇼체’의 어미들이 대개 中世, 近代

國語의 ‘합쇼체’의 殘形으로 變化를 입은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즉 中世의 -느이다, -소이다, -더이다, -리이다, -어이다... 등의 ‘이’가 ㅎ[ŋ]이 탈락된 채 그대로 나타나며 ‘습느이다. 읍느이다’와 같은 近代國語에서 보이는 ‘습’系 謙讓法的 恭遜法化 이후의 結合形이 變化를 입어 ‘-비니다’ 形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新小說에서 나타나는 것은 ‘읍니다’가 아니라 ‘습니다(습니다)’ 쪽임도 한 특징이다. 사실상 오늘날도 ‘읍니다’는 ‘있읍니다’, ‘없읍니다’ 등 ㅅ[s]ㅍ 아래에서나 표기상 쓰이고 있고 이경우도 ‘습니다’와 동일한 발음효과이기에 ‘습니다’로 쓰여야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徐正洙 1984: 44). 口語上으로도 ‘-습니다’가 우세하다(예컨대 ‘답습니다. 들읍니다’ 보다는 ‘답습니다. 들습니다’가 우세함). 또한 위에서 ‘-올시다. -십시다’ 같은 것도 口語體의 반영으로 주목되는 형태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ㅎ와 ㅅ의 ‘-네’를 따로 설정한 것은 문맥상 이들이 달리 쓰였기 때문이다. 즉 ㅎ는 귀부인이 하녀노파에게 하는 말씨이고 ㅅ는 자기 혼자 외치는 말씨이기에 특별히 ㅅ를 自己獨白과 같은 ‘해體’로 본 것이다. 만약 관점을 통일한다면 ㅅ의 ‘-네’는 ㅎ와 통합하여 ‘하계체’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체(두루낮춤)’나 ‘해요체(두루높임)’는 용례가 많지 않아 ‘해체’는 ‘-지’가 대표적이고 ‘-어, -이야, -군’과 같은 것은 찾기 어려웠다. 이것은 한정된 이 작품들에 귀하게 나타난다고 이 等分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루 낮춤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해라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기도 하기에 반말 ‘해체’의 용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두루높임의 ‘해요체’에도 마찬가지다. ‘해요체’를 20C중반기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본격적 형성기를 지적한 점에서는 타당하나(高永根 1974, 徐正洙 1984) 개화기때도 분명히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⁸⁾ 단지 그 빈도가 적

8) 近代國語에서도 ‘-요’는 이미 보인다. 春香傳에서, 나는 몰나요(p. 66),

은 것은 굳이 두루높임 ‘해요체’를 안써도 ‘하오체’나 ‘합쇼체’로 그 기능이 충분히 표현되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요’의 용례는 위 q, r, s 정도인데 만약 ‘합쇼체’나 ‘하오체’를 쓴다면 ‘업습니다. 업소’ 따위와 같은 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林在洙(1982)의 조사결과 중 우리의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만 중요한 것들 ()로 묶어 덧붙여 개화기국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개체>	<해라체>	해 체
-느이다	-오	-요	-네	--노라	--지
-오이다	-리다		--르세	--로다	--걸
-을시다				--라	(-네)
-습니다				--다	
-십되다					
(-더이다)					
(-리이다)					
(-여이다)					
(-야이다)					

(2) 疑問法

<합쇼체>

- 나라 위홀 힘이 잇습닛가(血 27)
- 소인은 어터서 자오릿가(血 26)
- 도라가섯스니 원일이오닛가(血 44)

<하오체>

정승을 못하오면 장승이라도 되지요(p.83) 등 참조.

申昌淳도 하오體는 18세기에 확립되었고 ‘-요’ 즉 해요體는 19세기 초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료는 春香傳, 沈清傳, 興甫傳 등의 對話에서 추출하여 그 증거를 대고 있다(申昌淳 1984 : 256~263 참조).

d. 여보 윈 사롬이오(血 5)

<하계체>

e. 이상훈 일이 아닌간(血 52)

f. 무슨 윈수를 짓고 만났던고(鬼上 38)

g. 근심만흔 사롬이 잠이 잘 오느(血 51)

<해라체>

h. 옥년아 죽엇느냐 사럿느냐(血 2)

<해체>(두루낮춤)

i. 에구 우리느라 군스가 이럿케 만이 죽엇느(血 44)

j. 윈 방경을 그리씨러(鬼上 30)

k. 보고십퍼 엇지살앗누(鬼上 19)

l. 그럼 범연이 할라구(鬼下 38)

<해요체>(두루높임)

m. 죽기는 무엇을 죽어요(血 52)

이상에서는 특별히 ‘-구, -누’ 形態의 의문법이 특징이다. 여러 용례가 발견된다.

n. 나 잇슬방은 어던구(鬼上 19)

o. 무슨 지경에 엇슬구(鬼上 132)

p. 어되 무어슬 가지고 그리하누(鬼下 39)

이 ‘-구, -누’는 ‘해라체’로 볼 수도 있으나 위 자료들이 모두 혼잣말이거나 지극히 가까운 사이의 대화이라 ‘해체’로 본 것이다. 또 g, i의 ‘-느(-나)’를 따로 본 것도 앞 平叙法 h, o의 ‘-네’의 경우와 같은 경우라 달리 본 것이다. 즉 g의 ‘-느’는 귀부인이 하녀 노파에게 한 말이고 i는 노파의 혼잣말로 외친 것이다. 역시 통합하면 ‘하계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말의 대표형태인 ‘-어’도 위 j에서 처럼 드물게 발견된다. m의 두루높임의 ‘-요’도 다음 예처럼 많지는 않으나 몇개 더 발견된다

따라서 이것이 곧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의 양상은 아니더라도 ‘해요體’가 이미 자리잡어 가고 있다는 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해요體보다 ‘-닛가, -릿가, -오’ 등의 합쇼, 하오체가 정중하게 충분히 그 기능을 담당했을 것이다.

- q. 스촌되시는 나라를 모르셔요(鬼下 8)
- r. 제월이를 다리고 어티를 가셔요(鬼下 9)
- s. 히라 하시가가 셔먹셔먹하셔요(血 71)

이상을 정리하여 본다.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 체
-슴닛가	-오	-요	-나가	-(느)냐	-어
-오릿가	(-쇼)		-니고		-누
-오닛가			-느		-구
(-나닛가)			(-뇨)		-(느)
(-시닛가)					
(-사오릿가)					
(-니잇고)					

이제 平叙法과 疑問法을 마침에 있어 개화기 국어 경어법의 중요한 양상 한 모습을 지적하고 넘어 가고자 한다. 그것은 곧 ‘하오체’의 ‘-오’의 특이한 斷面이다. 즉 ‘-오’가 ‘하오체’의 대표적인 어미로 당연히 쓰여 온 것은 사실이나⁹⁾ 오늘날 국어의 용법으로는 ‘하오체’로서 적절

9) 하오體의 ‘오’는 中世國語의 경우 疑問法에서 미약하게 보일뿐(ㅎ느니오, ㅎ니오, ㅎ리오 등)이고 이것도 하오體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平叙法에서 쓰여야 비로소 그 위치가 확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7C의 老乞大諺解(1670), 林通事諺解(1677), 捷解新語(1676)에서도 平叙法에서 ‘오’體는 안 보인다. 申昌淳(1984)은 恨中錄에서 이것이 비로소 보인다고 했다. (예: 과연 다형호오 <권 5>. 따위). 그는 하오體의 출현배경이 안면없는 남이나 他地方 사람을 대할때 쓰는 말투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開化期에는 더욱 교통왕래가 빈번하여 他地方人과의 교류상이 말투가 더욱 보편화된 것으로 본다(申昌淳 1984 : 261~262).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오체’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각 상황과 예를 들어 본다.

- a. <옥련이가 양어머니에게> 여보 어머니 저것이 무슨 소리오(血 42).
- b. <옥련이가 양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참 시집 아니가고 집에 잇셔 날 공부시켜 주시깃소(血 46)
- c. <옥련이가 친아버지에게> 아버지 누는 너일이라도 우리집으로 보니주시오(血 82)
- d. <7세 옥련이가 군의관에게> 날을 도로 우리집에 보내 줄 것오 으면 아무데라도 가고 아무 것을 시기더리도 하겟소(血 34)
- e. <길순이가 父母에게> 드러가셔 주무시오(鬼上 2)
- f. <침모가 老母에게> 어머니, 니가 하더터면 큰 일을 저즈를편 하얏소(鬼上 119)

이상과 같이 年少者나 子息이 年長者나 父母에게 ‘-오’체를 쓰는 것이 개화기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一面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近代國語에서도 쓰여온 양상이었다(李翊燮·任洪彬 1983 : 231).¹⁰⁾ 이것은 오늘날 자녀가 불손하기는 하나 허물없이 부모에게 ‘-우’體를 쓰는 경우와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예 : 엄마 시장 갔다 왔우?)

(3) 命令法

<합쇼체>

- a. 어셔 드러옵시사고 엿쥬어라(鬼上 25)
- b. 어셔 침모다리고 계동으로 가시오(鬼上 28)

<하오체>

- c. 누구를 보니보구려(鬼上 29)
- d. 사름좀 살려주오(血 6)

10) 춘향전에서 예들든다(p.273).
 어사또 그말듯고 이리 어더잇디. 남원읍의사오. 어더를가늑. 서울가오.
 무삼 일노가니, 춘향의 편저 갔고 구관덕의 가오.

<하계체>

e. 물줄 느적느적 하계 (鬼上 4)

<해라체>

f. 이집 힘놓방에서 즈거라 (血 26)

g. 안마루에 갓다 노아라 (血 26)

h. 방으로 다리고 드러오려무는 (鬼下 123)

<해체>(두루낮춤)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어, —지’ 따위).

<해요체>(두루높임)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어요, —지요’ 따위).

역시 두루높임, 두루낮춤의 용례가 귀한데 ‘—어요, —지요 : —어, —지’의 표현이 오늘날 명령법으로 활발히 쓰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口語上으로는 실제 드물게 쓰였을 것이나 작품상에서는 안 나타나고 그 기능을 ‘하오체’와 ‘해라’ 등에 부담시켜 文語化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 체
—드시사	—구려	—어요*	—계	—라	—어*
—시오	—오	—지요*		—거라	—지*
(—소서)				—려므는	

(4) 感歎法

넓은 의미에서 平叙法이나 疑問法에서 통합해서 다룰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따로 나누었다.

<합쇼체>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비니다그려’ 따위).

<하오체>

- a. 압다 답답흔 소리도 하시구려(鬼上 10)

<하계체>

- b. 우리되 령감게서 도라가섯네(血 44)

<해라체>

- c. 너 혼즈 집을 지키고 잇구느(血 8)

<해 체>(두루낫춤)

- d. 응 잘가노구(鬼上 141)

- e. 어 너편네들이란 거슨 큰일 놀거시로구(鬼上 128)

- f. 어느 사름이 아랏스랏(鬼上 37)

<해요체>(두루눈임)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군요, —걸요’ 따위).

특이한 것은 疑問法의 ‘—누, —구’처럼 ‘—구나, —군’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구’가 많이 발견된다.

- g. 요시 불 으니 썩기로 못줄라구(鬼下 40)

- h. 헐 다근노구(鬼上 134)

- i. 썩돌네 집에 가서 알려야 하깃군(鬼下 37)

- j. 요년 오놀밤에 아니오려느 거시로구(鬼下 116)

이들은 平叙法, 疑問法보다 感歎的 意味로 쓰였기에 感歎法에 들어가며 허물없는 사이, 非格式의 관계에서 주로 쓰인 것임이 이 ‘—구’가 나타나는 문맥환경에서 드러난다.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 체

—디니다그려* —구려

—군요*

—네

—구느

—구

—걸요*

(—도다)

(—고나)

—로구

—스랏

(5) 請誘法 및 應諾法

<합쇼체>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십시오, —시지요’ 따위)

<하오체>

읍일이느 의논합시드(鬼上 66)

<하계체>

구경느거든 또 드러오세(鬼上 26)

<해라체>

양복이느 입혀보자(血 40)

너의 집으로 곳 보너쥬마(血 34)

<해 체>(두루낮춤)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어, —지’ 따위)

<해요체>(두루높임)

— * 用例가 안보일 뿐 실제 있었을 것이다(‘—어요, —지요’ 따위)

역시 現代國語 두루높임, 두루낮춤에 나타나는 ‘—어(요), —지(요)’의 용례가 귀한 것은 그 당시가 이 형태소의 용법이 앞에서 살핀대로 平叙法과 疑問法에서 보일뿐 혼하지 않은 것임을 어느 정도 보여 주는 것이요 따라서 두루높임, 두루낮춤의 용법은 現代國語만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계체>	<해라체>	해 체
—십시오*	—디시다*	—어요*	—세	—자	—어*
—시지요*		—지요*		—마	—지*

(6) 教科書의 叙法

다음으로 教科書 分析에서 드러나는 것은 一般 讀者를 대상으로 하는 叙法인데 <國民小學讀本>과 <小學讀本>은 ‘해라체’로 거의 일관되어 있고 드물게 ‘하오체’가 보이며 <尋常小學>은 ‘합쇼체’나 ‘하오체’로 일

관된 모습이라 대조적이다.

〈國民小學讀本〉…‘해라체’ 위주

- a. 우리 大朝鮮은 …土地는 肥沃하고 物産이 饒足하니라(國 1과)
- b. 生徒의 將來事業이니 專心하야 修學홀지어다(國 3과)
- c. 그는 水의 惡臭 力이 아니냐(國 13과)

그리고 아주 드물게 ‘하오체’가 보인다.

- d. 各色 冊을 보고 各色일을 發明홀이 아니릿가(國 13과)

〈小學讀本〉…‘해라체’ 위주

- e. 男子의 立志가 上下와 四方의 有함으로써 홀이니라(小 1과)
- f. 엇지 可惜지 아니하랴(小 3과)

그리고 역시 드물게 ‘하오체’가 보인다.

- g. 自任치 못하면 엇지 男子라 稱하리오(小 1과)

〈尋常小學〉…‘합쇼체, 하오체’ 위주

- h. 조흔 열기도 열니을는이다(尋 1권 1과)
- i. 父母의 恩惠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호오이다(尋 1권 18과)
- j. 조흔 동모로 더부러 사귀는 거시을소이다(尋 2권 10과)
- k. 譬컨터 各色 물드리는 집이오(尋 1권 1과)
- l. 各樣 모종을 기르는 모관이오(尋 1권 1과)

특히 1처럼 ‘-이오’의 異形으로 ‘-이요’가 나타나는 것은 두루눔의 ‘해요체’가 나타나는 양상이 ‘-이오’의 異形態 ‘-이요’의 출현과 어떤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¹¹⁾ ‘-이오’의 異形態 ‘-이요’의 습관에서부터 ‘-요’ 結合形이 두루 보편화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두루눔의 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推定은 金鍾澤(1982)에서도 암시된 바 있다.¹²⁾

11) 申昌淳(1984)에 의하면 ‘-요’ 結合形은 19C초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高永根(1974)에서는 1920, 30년대부터 ‘-요’ 統合形이 우세하다고 했다.

12) “…[요]는 어원적으로 ‘하오’의 일종인 ‘이오’의 준말로 볼 수 있는 것이다…”(金鍾澤 1982: 119).

그리고 더 많은 開化期 教科書를 분석하여 叙法語尾의 等分을 수립한 康允浩(1975: 384, 385)의 도표를 참조해 보면 우리의 新小說 分析에서 얻어진 語尾類가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 바 차이가 나는것은 新小說에 나오는 ‘一누, 一구’ 따위는 教科書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물론 ‘一누, 一구’ 따위가 口語이기에 文語體의 教科書에 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Ⅲ. 開化期文法家들의 견해

다음은 新小說과 開化期 자료를 통한 분석의 이해를 돕고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특히 國文法家들의 敬語法에 대한 파악의 정도를 살펴 보는 것이 이 시대 敬語法 體系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살펴본다.

(1) 作品속에서의 敬語法 意識

國文法家들의 견해에 앞서 사실은 新小說作品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作家(그 시대 인물)가 표현하는 敬語法 관계 對話場面이 있다.

① <옥편의 애인 구완서가 옥편에게> 우리 처음 불천에 네가 느허 어린고로 너가 히라를 하얏더니 지금은... 히라 하기가 셔먹셔먹하고 나(血 71). ...너는 놀더러 종시 히라 소리를 아니하니 너도 마쥬 호 오를 훌일이로구. 허허허(血 72)

② <점순과 최가는 부부사이임> 최가가 점순이더러 히오도 하다가 히라도 하다가 반말도 하논디 엇지보면 점순이를 잡것 놀니듯 하논것 갓흐나...(鬼上 145)

이상의 내용은 作家 李人植을 포함한 當代 言衆이 ‘하오—해(반말)—해라’의 三等分 體系를 확실히 의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것은 특히 위 ②에서 ‘히오(하오)—반말—히라’는 적어도 구별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大韓文典(崔光玉, 1908)

崔光玉의 이름으로 펴낸 <大韓文典>(1908)을 보면 敬語法 관계의 짧은 언급이 보인다.

- a. ‘습’이 ‘시습’의 縮成者라(p.37)
 b. 體裁는 一曰 尊敬하는 意를 表하는 者니 他의 動作을 尊敬함이
 라(p.41 이하)

現在 ‘시’, 未來 ‘실’, 過去 ‘신’, 及連續 ‘샤’, 終結段 ‘소
 셔’ 等語로 成하는니라. 其例를 設하건디

손님이 오시오. 가실길이 머오. 어룡이 붙으신다.

상감의옵셔 조셔를 나리샤 정스를 명빅히

하시와 빅성을 구제 하시옵소서.

二曰 謙恭하는 意를 表하는 者니 他에 對하야 自己의 動作을
 謙恭함이라. 現在及過去 ‘니다’ 未來 ‘이다’ 等語로 成하는니
 其例를 設하건디

그 사람이 저게 오읍니다(或은 ‘니다’의 代에 는이다) : 現在

어제 그 사람을 만나습니다(或은 ‘니다’의 代에 는이다) : 過去

리일 저녁전에 올이다 : 未來

위 記述은 誤謬가 많은 原始的 수준의 記述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體裁’를 ‘敬語法의 틀’로 보아 ‘尊敬’과 ‘謙恭’의 二元 體系로 본 것
 은 現代國語가 中世의 主體謙讓法을 쇠퇴시키고 단순한 聽者待遇法(相
 對尊待 또는 恭遜法)으로 기능을 넘겨 주어 오늘날 크게 尊待法과 恭遜
 法으로 된 것을 그 당시로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3) 朝鮮語典(金熙祥, 1911)

開化期 最大의 文法家 周時經의 著作에서는 오히려 敬語法에 대한 특
 별한 記述을 발견 못함에 반해 開化期 國語의 敬語法을 그래도 체계 세
 운 것은 <朝鮮語典>이란 金熙祥의 文法書이다. 그는 ‘五層待遇’라는 用
 語로 다음과 같은 等分을 세웠다.¹³⁾

13) ‘待遇’라는 用語를 사용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徐正洙(1984)는 敬語
 法, 尊待法, 尊敬法, 尊卑法 등의 용어보다는 ‘待遇法’이란 용어가 적합
 하다고 주장하였다. 尊待法, 敬語法 등은 용어상 尊敬 표현만을 가리키기
 에 非尊待, 낮춤말의 범주도 포괄하는 용어로 ‘待遇法’이란 용어가 합당
 하다는 것이다.

〈上待〉	〈中待〉	〈半待〉	〈半半待〉	〈下待〉
(하압시오)	(하오)	(반말)	(하계)	(하야라)
보입니다	보오	보아	보네	본다
보압니다	보오	보아	보나	보느냐, 보니
보시지요	보압시다	보아	보세	보자
보압시오	보오	보아	보게	보아라

이것은 오늘날 〈합쇼〉 〈하오〉 〈해〉 〈하계〉 〈해라〉體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開化期 및 20세기 初期 國語가 現代와 體系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나 두루높임의 ‘一요’體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一요’體가 그만큼 드물었기에 이 開化期 文法家의 눈에 고려대상이 안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開化期 文法家의 분석을 통해 當代人이 본 敬語法 意識을 살펴 보았는데 그 후 日帝下 文法家들의 分析 특히 崔鉉培의 〈우리말본〉(1937)의 敬語法 體系도 開化期 國語의 모습을 가깝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본〉에서 나눈 等分은 사실상 위 金熙祥의 分類와 용어만 일부 다를 뿐 分類는 같은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崔鉉培의 等分은 결국 ① 아주낮춤(해라), ② 예사낮춤(하계), ③ 예사높임(하오), ④ 아주높임(합쇼)에다가, ⑤ 반말을 설정하였고, 그 역시 ‘一요’體를 인식했으나¹⁴⁾ 이것을 ③ 예사높임(하오)體에 소속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가 ‘一요’體를 인식했으면서도, 해오體기능이 중대시된 20세기 후반기 오늘날의 현대국어와 달리 단순히 하오體속에 포함시킨 것은 역시 開化期 國語나 20세기 前期國語가 ‘一요’體에 있어서 같이 微弱한 시기에 속하기에 그 역시 그 意義를 크게 못 느낀 때문이라 하겠다.

14) 〈우리말본〉에서 하오體로 본 ‘-요’體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도 같이 가지요 땀이 잘 돌아요. 아버지 눈이와요. 달이 구름속으로 숨어요. 물이 자주 들어요. …등. (우리말본 p.269)

結

지금까지 論議된 것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開化期 國語의 敬語法은 傳統的인 國語 敬語法의 모습처럼 語辭類(體言, 接辭, 助詞, 感歎詞)와 叙法의 終結語尾의 等分으로 나타나는데 中世國語의 謙讓法이 恭遜法化한 近代國語의 모습대로 尊待法과 恭遜法의 二元次元이고, 等分은 합쇼, 하오, 하게, 해라體의 基本 四等分에 핵요, 해體가 非格式體로 추가 된다. 그러나 現代國語와 달리 핵요體(두루높임)만은 아직 微微한 단계로 두루 사용되지 않았다. 開化期 文法家 金熙祥의 <朝鮮語典(1911)>의 五分體系(上待, 中待, 半待, 半半待, 下待)는 비록 用語는 세련되지 못했으나 핵요體를 제외한 五分體系를 보여주기에도 이것도 開化期 國語의 等分을 잘 記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위 반말의 해體(두루낮춤)는 분명히 口語體로는 쓰였을 것이나 해라體가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에 新小說같은 데에서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두루낮춤의 해體의 用例가 적은 것은 文語化과정에서 생긴 결과이지 실제 口語體는 해體가 보편화하였다고 하겠다.

② 身分社會의 傳統이 강하게 남아 호칭어에서 ‘아씨, 영감, 마님, 서방님...’ 등의 尊待語와 ‘썬네...’ 등의 謙讓語가 보인다.

또한 호칭어에서 ‘자네’와 ‘이인’의 사용도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近代國語의 用例와 쓰임이 일치된다.

助詞에 尊稱主格, 尊稱與格이 각각 ‘게서(의서), 게(께)’로 나타나고 接辭로 쓰인 것에는 ‘-宅’이란 尊稱에 대조되는 ‘-집’이 卑稱으로 쓰였다(예 : 이인 김집아)

또 ‘여보, 여보게’의 쓰임도 오늘날은 夫婦사이, 老年層에서나 쓰일 정도로 用法이 축소된 것과 달리 빈번히 호칭어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③ 平叙法에는 합쇼, 하오, 하게, 해라體의 語尾가 드러나고 특히 합쇼體는 ‘-느이다’와 같은 ‘-이다’形의 恭遜法이 두드러지며 ‘-습니다, -올시다, -십시다’ 등도 자연스레 쓰인다. 그리고 두루높임의 해요體가 분명히 발견되나 用例는 적고 두루낮춤의 해體도 用例가 적는데 이것은 해요體나 해體의 기능을 합쇼, 하오體나 하게, 해라體가 충분히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用例빈도상 두루낮춤보다는 두루높임의 해요體가 더 적어 두루높임이 아직 미약한 단계임을 보여준다.

④ 疑問法에도 平叙法같은 6等分이 존재하나 역시 해요體, 해體는 用例가 적고 특이한 것은 해體에 ‘-구, -누’(할라구? 엇지살았누? 등)와 같은 특이형태가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어(요), -지(요)’같은 두루높임 및 두루낮춤 형태는 더욱 用例가 귀하다.

⑤ 하오體중에 年少者가 年長者에게 쓰는 표현이 개화기때 분명히 혼해 近代國語의 傳統을 보여주며 오늘날은 不遜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된다(예 : <우련이가 양어머니에게> 여보 어머니 저것이 무슨 소리요).

⑥ 命令法, 感歎法, 請誘法 및 應諾法에도 6分體系로 믿어지나 두루높임, 두루낮춤의 用例는 귀한데(이는 作品上의 표현제한에 기인될 수도 있는 문제로 실제 口語體上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感歎法의 해體(두루낮춤)로 疑問法의 해體에 쓰인 ‘-구’ ‘-누’ 중 ‘-구’가 자주 보인다. 이것은 오늘날 ‘-구나, -군’에 해당된다.

⑦ 教科書 分析도 新小說 分析과 同一한 결과를 보여주며 教科書들은 冊들마다 文體選擇이 다르기도 하다. 예컨대 <國民小學讀本>과 <小學讀本>은 ‘해라體’ 위주이고 <尋常小學>만 ‘합쇼體, 하오體’의 尊待法을 보인다.

⑧ 申昌淳(1984)은 平叙法에서 하오體는 18C, 해요體는 19C初까지는 비로소 기반을 잡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1세기 차이가 타당한 것처럼 입증이나 하는듯 開化期 國語에서 우리의 자료분석은 하오體가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데 반해, 해요體는 나타나지만 미약하여 아

직 확고히 자리잡지 않았고 한편 ‘—이오’의 異形으로 ‘—이요’가 發音上 형성출현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듯 ‘—이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⑦ 開化期 文法家들의 분석은 金熙祥의 <朝鮮語典>(1911)에 보인 敬語法 等分體系가 정확한 분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니 그는 오늘날의 합쇼, 하오, 하게, 해라, 해體에 해당하는 ‘上待, 中待, 半待, 半半待, 下待’의 五分體系인 바, 미약했던 두루높임의 海요體를 무시한 결과 당연한 분석이었고 이것은 20세기 前期國語 分析의 代表로 지저할 수 있는 <우리말본>(1937)의 분석이 五分體系인 것과 同軌인 것이다. 이것은 開化期國語가 20세기 前期國語로 큰 차이없이 移行되어 온 증거라 하겠다.

⑧ 종합적으로 開化期 國語는 합쇼, 하오, 하게, 해라體의 기본 四等分體系에 海요, 海體가 두루높임, 두루낮춤의 형태소로 자리잡았는데 口語上으로는 두루낮춤은 두루높임보다 보편화되었으나 두루높임 ‘—요’는 미약하여 20세기 중반이후의 본격적 사용을 준비하고 있었고 文語上으로는 합쇼, 하오, 하게, 해라體가 충분히 높임과 낮춤의 기능을 담당했기에 海요體, 海體의 사용은 많지 않고 특히 海요體의 용례가 더 귀하다. 그리하여 결국 開化期 國語가 近代國語로부터 現代國語로의 過渡期的 樣相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康允浩(1975), 開化期の 教科用 圖書, 教育出版社.
 高永根(1974), “現代國語 尊卑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金敏洙(1957), “大韓文典攷”, 서울大 人文·社會科學論文集 5.
 金鍾澤(1982), 國語話用論, 형설출판사.
 金鍾墳(1984), 국어경어법연구, 집문당.
 김경수(1980), “17C초기국어의 높임법, 인칭법, 주제대상법을 나타내는 안팎

- 음씨끝에 대한 연구”, 한글 167.
- (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정음사.
- 金熙祥(1911), 朝鮮語典, (역대한국문법대계 ① 19, 탑출판사)
- 金亨奎(1947), “謙讓詞의 研究”, 한글 12-4~13-1
- (1962), “겸양사 문제의 재론”, 한글 129.
- 徐正洙(1972), “현대국어 대우법연구”, 어학연구 8-2.
- (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成善徹(1970), “國語 待遇法 研究”, 忠北大論文集 4.
- (1976p), “現代國語의 客體尊待問題”, 어학연구 12-1.
- 申昌淳(1963), “相對尊待語攷”, 文耕 15, 中央大.
- (1984), 國語文法研究, 박영사.
- 安秉禧(1961), “主體謙讓法의 接尾辭 ‘-습’에 대하여”, 진단학보 22.
- (1963), “즈가語攷”, 국어국문학 26.
- (1965), “15세기 국어恭遜法의 한 연구”, 국어국문학 28.
- (1967), 한국어 발달사(文法史),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1982), “중세국어 경어법의 한 두 문제”, 백영 정병욱선생 회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1982), “중세국어의 겸양법 연구에 대한 반성”, 국어학 11.
- 李家源(1968). 춘향전, 정음사.
- 李基文(1970), 개화기 국문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1972),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 李崇寧(1962), “겸양법연구”, 아세아연구 10.
- (1964), “경어법연구”, 진단학보 25·26·27 합병호.
- 李承旭(1973), 국어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일조각.
- 李應鎬(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청사.
- 李翊燮(1974a), “영동방언의 경어법 연구”, 서울대교양과정논문집 6.
- (1974b), “국어경어법의 체계화문제”, 국어학 2.
- 李翊燮·任洪彬(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林在洙(1982), “20세기초기 국어의 경어법체제에 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全在寬(1958), “습따위 敬讓辭의 散攷”, 경북대 논문집 2.
- 崔起鎬(1979), “17C국어의 존대법체계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 (1981), “17C국어 ‘습’의 동사기능”, 말 6.
- 崔鉉培(1937, 1975), 우리말본, 정음사.

崔光玉(1908), 大韓文典, (역대한국문법대계 Ⅰ 05, 탑출판사)

許 雄(1961),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1962), “존대법 문제를 다시 논함”, 한글 130.

(1963), “또 다시 존대법의 문제를 논함”, 한글 131.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大.

<자료>

1.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신소설·번안소설 I <血의 淚> <鬼의 聲 上·下> 아
세아문화사
2. 한국개화기 교과서총서 I <國民小學讀本><小學讀本><尋常小學>